

청춘이니까 아픈 취준생들에 듣는다

“눈 낮춰 중소기업 가라고?... 처우부터 대기업 맞춰라”

취준생들의 이모저모

연구원 월급 70만원으로 생활 대학2년중퇴 '학력차별 벽' 느껴

취업준비생들의 전쟁은 해가 바뀌어도 현재진행형이다.

아니 오히려 더욱 치열해지지만 한다. 친구들이 하나 둘씩 바늘구멍을 뚫고 취업에 성공할 때마다 마음은 더욱 조급해진다. 순간 벌리게 되는 부모님께도 죄송할 따름이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다.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아까워서라도 분명 '성공'해야 한다. 성공은 곧 '취업'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했다. 청춘이니까 아프다고 했다. 그래도 청춘이라 희망이 있다.

메트로신문 인턴기자들이 무술년 새해인 2일 '취업 성공'의 단꿈을 꾸고 있는 우리 주변의 청춘들을 만났다.

◆하루 하루가 취업 전쟁터, '청춘이니까 아프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취준생 A씨(28). 2년간 대기업 문을 두드리던 A씨는 방향을 돌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다. 또 다시 시간이 1년 반 가량 지났다. 지난해엔 공무원 시험에서 고배를 마셨다. 3년 반 동안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 매달 50만원의 용돈을 받았다. 공무원 준비를 하고선 200만원짜리 코스 강의도 들었다. 6개월부터는 아르바이트도 시작했다.

"2년간 대기업만 60여 곳에 원서를 냈다. SSAT(삼성직무적성검사)도 붙었지만 면접을 넘지 못했다. 부모님께 죄송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 30만~40만원 가량을 벌여 쓰고 있다." A씨의 말이다.

소위 'SKY' 대학 이공계를 졸업한 B씨(27)는 1년 4개월째 취준생 신분이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국책연구소 등을 두루 지원했지만 때로는 서류에서, 때로는 최종면접에서 미끄러졌다.



지난달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7 공공기관채용박람회'가 취업준비생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B씨는 "석사 후 연구를 하고 있어 매달 70여 만원 받는 돈으로 교재 구입, 교통비, 밥값 등을 충당하고 있다. 오전엔 연구소 업무와 채용정보 탐색, 오후엔 지원서 작성이나 친구들을 만나 정보를 들으며 일과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C씨(여·26)는 인턴이 취업에 도움이 될까 싶어 시작했지만 적지 않게 후회를 하고 있다.

"신입 같지 않은 신입을 원하는 회사가 많은 것 같아 경력이 한 줄 넣기 위해 인턴을 시작했다. 그런데 9시에 출근해 6시에 퇴근하다보니 인턴을 하면서 취업준비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체력적으로 힘들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정직원들은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쉬지만, C는 평일에 일하고 주말엔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 케이스다.

C씨의 꿈은 소박(?)하다. 어떤 직장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C씨는 "딱 정시에 퇴근 가능하고, 업무시간 외에 스트레스 없고 월급이 넉넉한 그런 직업을 갖고 싶다(웃음)"고 말했다.

대학교 2학년을 다니다 중퇴한 D씨(29)는 취업 현장에서 학력의 벽을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다. 대학 공부가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에

저임금 등 열악한 환경에 중소기업 취직 의지 꺾여

'생활고' 허덕이는 취준생들 정부가 비용문제 해결해야

서 중퇴했지만 오관이였다.

D씨는 "고졸 학력으로 한국사회에서 지내는 것은 버겁다"는 말로 무게감을 대신 전했다. 그러면서 "한 제조업 공장에서 2년 정도 일하고 나니 사장이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더라. 그 때 짚린 사람은 고졸들 뿐이었다. (고졸이란)차별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눈 낮춰 중소기업에 가라고?

그렇다고 대기업에서 눈을 돌려 중소기업에 취업하기엔 마음이 썩 내키질 않는다.

A씨는 "중소기업은 가고 싶지 않다"며 잘라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친구를 보니 법정 근로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렇다고 추가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었다"며 "중소기업은 연봉도 낮고 복지도 좋지 않고, 처우도 열악해 가고 싶지 않다. 나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대기업이 485만원인 반면, 중소기업은 이보다 39.4%나 낮은 월 294만원에 그쳤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큰 상황에서 A씨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B씨도 "어른들은 눈을 낮추라고 하지만 아무데서나 시작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 심정이다. 일단 회사에 들어간 후 이직 하라고도 말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적응하느라 정신없어 이직이 쉽지 않다고 들었다"고 토로했다.

은행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E씨(25)는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경쟁하며 살아왔다. 무조건 남들보다 더 높이 가려고만 한다. 그런데 좋은 일자리 얻기는 '바늘구멍'이다. 중소기업이 많지만 (취준생들이) 눈을 낮추긴 어려운 현실이다. 중소기업에 들어가게 장려하지 않은 환경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취준생들의 가장 큰 걱정은 '돈'이다. 취업 기간이 길어질 수록 부모님에게 기대는 일도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영업직에서 일하고 싶다는 F씨는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부담드리는 게 가장 죄송하다. 4학년 2학기부터는 취업 준비 때문에 '알바'도 그만둔 상태여서 빨리

취업해서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다"며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

◆정부가 내놓는 수많은 대책은 '글썸'

청년 취업을 돕기 위해 쏟아내놓고 있는 정부 정책도 취준생들은 그리 달갑지 않다.

취재 중 만난 한 취준생은 "정부가 기업에 일자리를 늘리라고 강요하기보단 법적으로 40시간 이상 일을 못하게 하고 이를 철저히 단속하면 기업은 일손이 부족해 자연스럽게 사람을 뽑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다"고 말했다.

스펙을 쌓기 위해 취준생 대부분이 치르는 토익이나 토익스피킹 시험 등의 비싼 응시료도 가격이나 '생활고'에 허덕이는 취준생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정부가 차라리 이런 비용이라도 줄여주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E씨는 "토익의 경우 900점은 넘었으니 됐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또 950점이 기본이 된 것 같다. 3월에 토익점수가 만료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라며 "지난달에만 토익시험을 2번이나 봤다. 응시료가 또 오를까 겁난다"고 토로했다.

청년일자리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의 김영민 정책팀장은 "정부의 청년 취업 대책엔 당사자인 '청년'이 빠져있다"면서 "취업성공패키지와 내일채움공제가 대표적인 것인데, 취업성공패키지는 상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 또 직업 훈련 후 막상 취업하면 저임금 직장인 경우도 많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 중심적이다. 목돈을 모은다는 이유로 연봉이 삭감되기도 하며 2년이 '기본'이라 이직을 막는 제도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또 "정부 정책이 청년을 위한 것이라면 청년 개개인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면서 "정책 목표는 수치가 아니라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치만 보면 정책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구서윤·김현정·나유라·임한재·정연우 인턴기자 bada@metroseoul.co.kr

인터뷰 '취업 전문가' 나영규 한국외대 진로센터 과장

“4차 혁명에 일자리 사라질 위기...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관심 갖도록 유도해야”



▲현장에서 본 청년 취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선 일자리가 부족하다. 질 좋은 일자리도 많지 않다.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면서 기존 일자리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계약직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다. 정규직과 계약직간 전환방식도 모호하고 정책 일관성 역시 부족하다.

▲대·중소기업간 일자리 mismatch이 심각하다. 학생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은 것인가.

-눈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중소·중견기업 관련 취업박람회를 열면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낮은게 현실이다. 대학평가에서 대기업 취업률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학교 운영진이나 교수들도 대기업 취업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결국 일자리 mismatch를 만든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나 복지격차를 줄여야 하지만 쉽진 않아 보인다. 그래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장점도 분명히 있다. 연봉이 아니라 취준생들이 중소·중견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분명한 포인트를 제시해주고,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블라인드 채용이 대세가 되고 있다. 현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블라인드 채용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취업하고자 하는 업종이 원하는 스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일례로, 해외무역파트를 지원하면서 무역에

“ 블라인드 채용-정량 평가에 융통성 발휘를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책, 일관성 가져야 일자리 차선택인 '공무원 증원'에는 동의 ”

대한 인턴경력, 자격증, 외국어 구사력, 무역법에 대한 상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기업들이 블라인드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여학생적, 학점, 자격증, 대학은 지원자의 히스토리다. 극심한 블라인드 채용은 오히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취업준비생들을 존중하지 않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잠깐 빛을 발하는 사람과 꾸준히 노력해 온 사람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다. 일부 공기업처럼 채용비리 등을 막기위해선 블라인드 채용도 필요하겠지만 이와 함께 정량 평가 등을 융통성있게 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채움공제, 청년취업아카데미 등의 정책은 도움이 되나.

-일정부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유용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 없는 취업 지원정책이 시행돼 현장에서 혼란스러운 경우도 많다.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데 이런 점이 다소 아쉽다. 내일배움채움공제는 대기업 취업에 쏠린

학생들의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고, 청년취업아카데미는 진로를 정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기회비용을 줄여주는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도 '정책의 수'를 늘리기보단 기존 정책내에서 실효성이 높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

▲올해부터 공무원 채용을 늘리기로 했다. 청년취업난 해결에 도움이 될까.

-안정적 일자리가 많지 않아 차선택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에는 동의한다. 특히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사회복지공무원은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늘려야 한다. 다만 공무원 숫자 증원으로 취준생들의 꿈이 획일화되고, 사회의 다양한 직종을 형성하기 위해 이를 개발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줄어들까봐 걱정도 된다.

그렇더라도 지금 시점에선 성장만큼 분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공무원 증원 기회를 많은 구직자들이 활용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주전공 외에 부전공 심화나 이중전공 이수 등이 취업에 도움이 되나.

-기업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가진 지원자를 선호한다. 주전공 하나만 취업하기 쉽지 않다. 기업은 '저투자·고효율'을 경영의 제1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이중전공, 복수전공 등이 중요하다.

/김승호 기자·유재희 인턴기자